



國立公園 편의시설 태부족

사람은 즐기고 自然은 멎들어

吳 判 龍

國·道·郡立 등 自然公園의 保護와 利用에 대한 도 하각신문 記事의 焦點은 모든 開發途上國들이 겪듯이 保護보다 利用·開發쪽에 視角을 높혀 地域民의 經濟發展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짙다. 더욱이 保護意識의 회박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폭주하는 이용객과 정비례하는 赤信號를 울리고 있어 보호의식의 선양이 초급하다. 참고로 최근 각신문(전문지 포함)에 비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관한 기사의 제목만이라도 엮어 매스컴의 초점을 살펴 연구자료로 삼고저 한다.

5. 11~9. 23.

▲ 5. 11. 國立公園도 환경영향평가제도 制定돼야 - 自然공원개발에 대한 세미나 促求·利用者 증가에 대비해야(水道新報 7면 17×24cm 박스) ▲ 5. 26. 사람은 즐기고 自然은 멎들어-「되가져가기」빈발 바위 틈에 끼워 八公山 외진곳 쓰레기 더미 사진과 기사(每日新聞 15×21cm 산 기획기사) ▲ 6. 21. 국립공원 小白山 … 국민휴양지로 개발돼야 한다. 丹陽지역 景氣 소득증대에 直結·泉洞지구시설개발이 우선 課題(忠淸日報 9면 全面 記事原色版) ▲ 6. 26. 大茈山(도립공원)-암벽·폭포·기암괴석…中部의 小金剛, 2道 3郡걸친 새국민관광지로.(조선일보·새 各所企劃物 18.5×28cm 사진·기사 박스) ▲ 7. 1. 自然生態系지역조사 실시-智異山피아골·楊口大巖山서(聯合通信) ▲ 7. 11. 文化財관람료 징수 條例改正(濟州新聞 7면 1단) ▲ 7. 19. 전국유일의 黑沙場살리자·만성리海水浴場옛명성북구구슬담(조선일보기동 취재기획물·사진·기사 22×17.5cm 박스) ▲ 7. 19. 친절한 俗離山이미지부각 시킨다. 觀光客에 편의 提供힘써·報恩내속리 기관단체장회의(忠淸日報 10면 톱) ▲ 5. 17~8. 30. 한국국립공원협회주최·공원관리공단후원) 제 9 회 自然公園學術세미나(豫告 기사·行事기사·連載物등=聯通·한국·東亞·朝

鮮·서울·스포츠서울·日刊스포츠·每經(以上日刊) 건설환경·건설경제·공해안전·보건법률(以上주간) 國土와 建設·自然保護·환경과造景(以上月刊~격월간) ▲ 7. 19. 관광객 多島海로 몰린다. 年平均 22% 증가·內陸관광코스 食傷(光州日報·사진·기사 15면 톱) ▲ 7. 24. 奇岩絶벽·폭포·西海落照…조화이룬 絶景…全北 10景중최고.(조선일보·국립공원 邊山半島·새各所 기획物 사진·지도·기사 20×27.5cm 박스) ▲ 7. 25. 국립공원 月出山제대로 가꾼다. 自然保存協 44명 19개 전문반편성. 觀光개발기본자료로(光州日報 10면 톱) ▲ 7. 26. 산 보존능력은 곧 文化水準·月出山 자연조사나온 서울대 金熏洙교수 대담(光州日報 9×10cm 박스) ▲ 7. 30. 10년동안 달라진게 없다. 해안국립공원 泰安반도·숙발시설등 부족, 비포장여전. “국립” 지정으로 오히려 民間참여막아(조선일보 기동취재·사진·지도·기사 22×28cm 박스) ▲ 7. 30. 月出山에 食虫식물살고 있다. 거의 멸종단계…自生확인(光州日報 社會面 톱) ▲ 8. 3. 피아골자연생태계본격조사·환경청·學界대규모전문반 편성·조사결과따라 保全구역 指定키로(光州日報 15면 5단) ▲ 8. 3. 月出山국립공원은 稀貴동식물寶庫(東亞日報 15×20cm 박스物) ▲ 8. 4. 月岳山만수휴게소工事로 경관훼손·계곡에 돌흩더미버려(忠淸日報 10면 톱) ▲ 8. 4. 월악산국립공원 入場料징수(同上 10면 2단) ▲ 8. 6. 차량 洪水관광도로 智異山비명. 하루 1,500대나 성삼재 1~2km 장사진. 車輛통제~셔틀버스만 운행토록(光州日報 문란한 정차광경사진·기사 15면 톱) ▲ 8. 9. 국립공원 편의시설태부족·위락시설 거의 없고 여관·商街만 극성·피서인과 계곡에 몰려 쓰레기量産(中央日報 地方에선 지금…기획物 사진·기사 22.5×34cm 박

스) ▲8.10. 국립공원 管理상태 허술하다. 經營 收支 爲해 人員감축·산림훼손·자연오염심각·관리 업무관리공단이관후 심각. (忠淸日報사회面 톱) ▲8.10. 月出山 국립공원文化관광단지로 육성·登山 路등 집단시설지구 造成(光州日報 西海岸時代 시리즈 23 기획물·사진·기사 23×30cm 박스) ▲8.11. 智異山 入場料 큰 差異·계곡에 따라 2배까지 (경남신문 11면 3단) ▲8.12. 가볼만한곳 邊山半島. 山과 바다의 절경이 한곳에 (한국일보 레저기획물·사진·지도·기사) ▲8.14. 높은 峰 계곡 秘景. 車 타고 감상. 피서객몰리는 智異山 관광도로·평일 4천대, 공휴일엔 7천대 봄벼. 일부선 自然과피우려 (조선일보 새개소기획물·사진·지도·기사 19×27.5cm 박스) ▲8.15. 觀光소득증대에 중점·국립공원邊山반도 널리 弘報·郷土특산물적극육성(全北日報扶安郡版 톱·사진·기사등) ▲8.17. 智異山慶南권역開發계획만 무성·集團시설 지구公告후 3년째 방치·관광객全南圈에 몰려(釜山日報 14면 톱·사진·기사) ▲8.17. 國立공원관리에 문제점·公園이관후 人力·예산不足·賣票·쓰레기처리 급급·行政 기관협조도 안돼(全北日報 8면 地方 종합판 톱·사진·기사) ▲8.19. 호객행위·2重매표·바가지 요금등 無法천지된 伽倻山 국립공원. 곳곳에 오물. 수거조차않고 시설좁아 不法주차 성행(慶北日報 11면 톱·사진·기사) ▲8.22. 雪嶽山 환경오염 갈수록심각·은어등 山川魚멸종·五色단지生活污水

정화조 時急(산업환경·전국은 지금시리즈·사진·기사 11.5×34cm 박스) ▲8.23. 南海의 해금강 白鳥가 병든다. 無人島 39개 1명이 관리·郡 지원 끊겨 감시선 “낮잠”(한국일보·동서남북 기획물 기사·환상의 섬 白鳥사진과 기사 18.5×20.5cm 박스) ▲8.29. 계룡산국립공원 환경오염심각. 人力·매립장 不足으로 오물제때 수거못해·각종 不法 영업도 盛行(주간 保健法律 6면 톱·쓰레기 더미사진 기사) ▲8.31. 국립공원 智異山 수세식화장실 영망. 대부분 파손, 심한악취·관광객 公衆도덕 실종(光州日報·화엄사 집단 시설지구 사진과 기사·지방종합판 톱) ▲9.7. 內邊山 제일 名勝地·九折羊腸 감돌아 逢來九曲탄생(全北日報 蘆嶺의 숨결” 시리즈(42) 扶安 ② 5면 全面갈라 直沼 폭포등 사진과 기사) ▲9.8. 人間과 自然은 協力과 동반관계. 東洋의 우주중심 신조 再檢討를. 올림픽 학술회의 自然분야분과 모임(全北日報 학술판 橫 5단) ▲속리산에 9백40억투자·文藏台 온천지구 개발계획확정(每日新聞尙州發 3단) ▲道立公園지정 늦어져·聞慶군 雙龍계곡 일대…절반이 私有地…무계획성 드러내(9.19 每日新聞 13면 4단) ▲寶鏡寺(국립공원) 쓰레기場化·관광객들 마구 버려 ▲빼어난 景觀 원더풀喊聲·국제 청소년캠프회원·절경 雪嶽 세계의 자랑…기회 닿으면 다시 오겠다.(江原日報 9.23. 11면툱).

[筆者：本會事務局長]



설악산 권금성
임형운회원 제공